

## 경북대병원 생체부분간이식 성공

경북대병원이 서울을 제외한 지방 최초로 성인에게 살아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병원측에 따르면 병원 간이식팀(팀장 김양일 이식혈관외과 교수)은 지난 5월 B형 간염을 앓다가 간암으로 발전한 57세 남자환자에게 환자 아들(31)의 간 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해 현재 두 사람 모두 건강을 되찾은 상태다.

경북대 병원은 지난 98년 4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생체 부분 간이식에도 성공한 바 있어 간이식을 필요로 하는 소아는 물론 성인들도 뇌사자의 간 기증을 기다릴 필요 없이 성인의 생체 간 일부를 이식받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94년 서울대병원에서 최초로 이 수술이 성공한 바 있으며 이번 경북대병원의 수술 성공으로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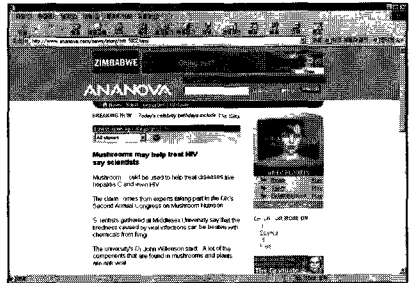


## 버섯 C형 간염, 에이즈 치료에 도움

버섯이 C형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터넷 뉴스사이트인 아나노바(<http://www.ananova.com>)는 최근 영국 미들섹스 대학에서 열린 영국의 버섯영양에 관한 2차 연례회의에 참석한 과학자들이 바이러스감염으로 인한 피곤증상은 버섯의 화학작용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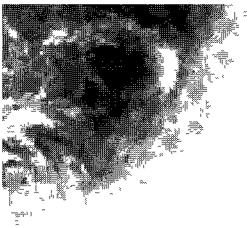
이 대학의 존 윌킨슨 박사는 "버섯과 식물에서 발견되는 많은 성분들이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버섯은 바이러스 질병을 치료하는데 무한한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 토마토 심장병에 효과

토마토가 뇌졸중 및 심장병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애버딘의 로윅연구소는 최근 자원자를 대상으로 하루 4개의 토마토를 섭취하게 한 결과 혈액을 굳게 하는 혈소판의 기능이 72%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토마토를 먹게 되면 혈액이 묽어져 뇌나 심장의 혈관을 막는 혈전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 지금까지 토마토가 테르펜 등 항산화물질을 지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있었지만 항(抗)혈소판 작용까지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 연구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 의약상담 전문방송 개국



진료상담을 해주는 인터넷방송이 등장했다. 나눔코리아(대표 윤효석·주용선)는 네티즌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진료상담도 해주는 인터넷방송 “메드티브이21”(www.medtv21.net)을 개설했다.

메드티브이21의 사이버종합병원에서는 서울 50개 병원의 전문의들이 차례로 출연해 생방송 형태로 네티즌들에게 진료상담을 해주고, 매일 오

전 과별로 2명씩 나와, 한 시간씩 회원들이 게시판에 올린 질문에 답한다.

네티즌들은 이곳을 통해 주치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사이버종합병원을 통해 진료상담을 받으며, 전자우편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진료 예약도 가능하다. 8월부터는 화상통신을 통한 진료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월슨병 조기진단 DNA칩 개발



월슨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디엔에이칩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월슨병은 음식물 속에 들어 있는 구리가 대사작용을 통해 몸밖으로 빠져나가야 함에도 장애로 간과 뇌에 축적돼 손상을 일으키는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는 질환. 전세계적으로 3만여명에 1명꼴로 발생하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조기진단 체계가 지금까지는 구축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난지 60개월 이후에 증세가 서서히 나타나 진단됐을 때는 이미 간의 손상이 많이 진행된 간이식을 통해서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조기에 진단해 구리흡착약(페니실라민)을 투여하면 간이식을 하지 않고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센터(유욱준 교수)는 한국인의 월슨병 원인유전자 변이가 서양인과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처음으로 규명했고, 이상엽 교수팀은 이를 이용해 한국형 월슨병 디엔에이칩을 개발했다.